



柳永秀 <꿀벌을 연구하는 모임>

통일신라 때에 청해진대사(淸海鎮大使)이던 장보고(張保皋)는 왕이 보낸 자객(刺客) 염장(閻長)에게 속아 만취되어 살해당한다. 술을 과음하면 제물을 추스리지 못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도 하찮은 자객에게 목숨을 잃게 되지만 잘만 활용하면 구명도생(構命徒生)하는 수도 있다.

후백제(後百濟)의 왕 견훤(甄萱)이 네째 아들 금강(金剛)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하는 눈치가 보이자 만아들 신검(神劍)이 서기 935년 3월에 쿠데타(찬탈)를 일으켜 부왕(父王)을 금산사(金山寺)에 유폐시키고 파달(巴達) 등 장사 30여명으로 감시하게 했다. 탈출할 길을 모색하던 견훤은 4월에 술을 빚어 감시병들을 취하게 하고 고려로 도망한다. 고려로 탈출한 견훤은 이듬해에 왕건에게 신검을 공격할 것을 요청하여 후백제를 멸망시킨다. 왕건으로부터 삼부(尙父) 칭호와 양주(楊州)를 식읍(食邑)으로 받아 구차하게 명줄을 이어가던 견훤은 936년에 황산사(黃山寺)등에서 등창으로 죽어 파란만장했던 삶을 끝낸다.

7. 삼국시대의 제사와 술

제사를 대별하면 천지신명(天地神明)을 받드는 제사와 조상신(祖上神)을 받드는 제사로 나눌 수 있다. 어느 민족이든 문화의 원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을 받드는 집단제사의식이다. 조상신을 받드는 제사는 따로 하지만 천지신명에게 드리는 제사는 부락단위 또는 부족단위로 행하

로 원형이 잘 보존돼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전(現傳)하는 삼국시대의 2대 사서(史書)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원류는 한자(漢字)문화로 상징되는 중국문화가 완전히 침투하기 이전인 상고시대와 삼국시대 초기에서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사료(史料)가 나타나기 전에 현재 사료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중국을 통한 불교문화의 전래와 김춘추(金春秋)를 정점으로 하는 친당파(親唐派)들의 빈번한 대당(對唐)외교 이후 우리 고유문화는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정사(正史)인 삼국사기가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철저한 민족의식으로 무장된 사람에 의해 편찬됐더라면 지금쯤 많이 달라져 있을 터이지만 그렇지 못하니 한스러울 뿐이다. 물론 삼국사기의 비자주성을 김부식(金富軾)만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고려의 왕실이나 지배층이 처음부터 사대모화(事大慕華)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배층 전체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의 사대모화는

고려태조 왕건(王建) 가문(家門)에 관한 설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왕건(王建)이 건국한 후에 창작(創作)했을 이 설화를 보면 증조부는 당(唐)나라 숙종(肅宗)이고 조부 작제건(作帝建)의 부인, 즉 왕건의 조모(祖母)는 서해 용왕(龍王)의 딸(龍女)이다. 용왕의 딸이라거나 하느님의 아들 등은 어느 나라의 건국 설화에도 흔히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당(唐)나라의 왕자가 등장한다. 서기 753년 어느날 당(唐)에서 배를 타

고 유람차 예성강(禮成江)을 따라 올라온 사람과 송악(松嶽, 지금의 개성)의 양가집 처녀가 처녀의 부모로부터 승락을 받고 한달간 동거한 다음 당나라 사람은 자기나라로 돌아갔지만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왕건의 조부인 작제건(作帝建)이다.

중국에서 자기 조상을 짚어볼 이기 식의 족보는 고려왕가(王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 성씨(姓氏)에서도 발견되지만 왕실이 이 모양이었으니 너도 나도 덩달아 흉내낸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사대모화 풍조가 빚어낸 웃지 못할 족보 만들기이다.

고려왕가의 족보(왕가의 족보

숙종은 양귀비(楊貴妃)와 로맨스로 만신창이가 됐던 당나라 제6대 황제 현종(玄宗, 재위 712~756) 이융기(李隆基)의 아들이다. 안사(安史)의 난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부왕(父王)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난을 평정하기 한해 전인 762년에 사망한 임금이다. 재위 기간이 6년 밖에 안되고 내란에 시달리다 보니 똑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임금이었다.

이렇듯 통일신라와 고려 건국 초기에 팽배했던 사대모화 작태는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제4조에도 나와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김부식(金富軾)만을 탓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차리리 삼국사기를 편찬하지 말고 「구삼국사(舊三國

그러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문무왕(文武王)이 원년(661) 3월에 조서를 내려 법흥왕(法興王) 19년(532)에 흡수 통합한 가야국의 종묘(宗廟)를 신라의 종묘에 합하여 제사지내도록 하고 위토(位土) 30경까지 하사한다. 그래서 김수로왕(金首露王)의 17대손 경세급간(曆世級干)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그 제전(祭田; 位土)을 주관하여 매년 명절마다 술(酒)·단술(醴)을 빚고 떡과 밥과 차와 과자 등 많은 제물(祭物)로써 제사를 지냈으며 해마다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일연선사(一然禪師)는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손이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인류가 최초로 마신 술은 자연 발효주이며 그 술은 아마 벌꿀주였을 것이다

史)를 정사(正史)로 하고 「신라·발해(남북조; 南北朝)사」나 아니면 「통일신라사」만을 따로 편찬했다면 더 좋았으리란 생각이 자꾸만 떠오른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종묘(宗廟; 祖上神을 모시는 곳)는 제2대 남해왕(南解王) 3년에 건립했고 제36대 효공왕은 오묘(五廟)를 세우고 선농(先農; 농사의 신, 바로 神農)에게 제사하기 시작했다. 또 전국의 명산대천(名山大川)에도 제사지냈다. 하지만 제례(祭禮)에 관해서 알 수 없으므로 술(酒)이아기는 뻔하다고 했다.

다음에 나오는 『향기롭고 효성스런 제사(祭祠)가 그 때에 이르러서야 우리(我)에게 맡겨졌다(芬苾孝祠, 於是乎在於我)』라는 구절이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禪師)의 속성(速成)이 김(金)씨라고만 알려져 왔지 본관(本貫)은 밝혀지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해제(解題)를 썼지만 아무도 밝혀낸 학자가 없다.

이제 위 글귀를 자세히 풀이하면 일연(一然)은 김수로왕의 후손이므로 김해김씨(金海金氏)라는 게 자명했다. 분(芬)은 「향내 분」이요 필(訖)은 「한

아 피 톨

가시웅애 및 꿀벌진드기 구제는 월동사양을 끝낸후 사양수에 아피톨을 혼합하여 딱! 1번만 급이하면 완벽하게 구제됩니다.

- 약제처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약효 탁월합니다.
■안전성 안심하세요.
■완벽한 약제는 약간 비쌉니다.

1갑 12g,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합니다.

일진실업

문의전화 (02)923-3470 927-3983(FAX)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64-11. 남도빌딩 301호. 김진동

벌꿀 현금수매 안내

양봉가 여러분의 정성어린 생산물인 아카시아꿀을 현금으로 수매키로 결정하였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영업안내 =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판매
■벌꿀 규격드럼(중량 약 33kg)
■벌꿀 규격말통(25kg 들이)
■벌꿀 규격병(신형·구형)

한국양봉진흥(주)

대표이사 이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 (02) 481-3697~8, 441-2780, FAX ; (02) 442-9426

역사에 관한 연구



필이다. 효사(孝祠)는 『효성스런 제사』쯤으로 풀이할 수 있을 테지만 여기에서 말고는 내가 단문(短文)인 탓인지 여태껏 본적이 없다. 『향기롭고 효성스런 제사』라니 아무리 읽고 또 읽어 보아도 어색하다.

제사(祭祠)면 족하지 효사(孝祠)라니. 그 다음에 오는 어시호(於是乎)는 『이제야』라는 말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 『이제야』 겨우 도래했다는 감탄이 담겨있는 말이다.

가야국(駕洛國)이 신라에 흡수 통합된지 130여년만에 맛보는 감격을 표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我)이다. 아(我)는 『나』 또는 『우리』이다.

위 문장에서 「나」라고 풀이하

鏡(沖照) 대선사(大禪師) 일연(一然) 찬(撰)이란 서(署)가 있어 찬자(撰者)가 누구임을 알 뿐이다. 일연의 속성(俗性)은 김(金)씨, 경주 장산군(慶州章山郡; 지금 경산)사람이다. 처음 이름은 견명(見明), 자는 회연(悔然). 부친은 언필(彦弼)이고, 모친은 이(李)씨였다. 고려 희종(熙宗) 2년(1206) 6월 신유일(辛酉日)에 태어났다. (중략) 고려 충렬왕 15년 6월에 병환을 얻어, 7월7일에 입적하니 향년 84세요, 승랍(僧臘) 71년이 었다]

어디에도 본관(本貫)은 나와 있지 않다. 이쯤에서 삼국유사를 다시 보면 불자(佛子)로서 전체적으로 제사(祭祠)에 관해선 그리 관심이 많지 않은데 오

군무(群舞)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지만 우리의 사서에는 남의 것을 빌려서 간단히 처리했거나 숫제 흘려보내고 말았다.

그러니 술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제사의식에 관한 부분은 후한서(後韓書)를 비롯하여 북사(北史), 당서(唐書)들을 옮기면서 마치못해 후한서를 인용하여 고구려에 동맹(東盟)이 있다며 간단히 처리하고 말았다.

삭제와 가필, 윤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제천행사는 철저히 외면해 버린 것이다.

우리 문화의 원류와 자주적 기상을 진수(陣壽)의 삼국지(三國志)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으니 어찌 한심하다고 하지 않

다. 그리고 21년 3월에는 달아난 교시(郊豕)를 쫓아 (제물)담당자 설지(薛支)가 국내위나암(國內尉那巖)까지 쫓아가서 생포한다. 설지(薛支)가 돌아와서 『국내위나암은 산수(山水)가 깊고 험하며 땅이 농사에 알맞고 물산이 풍부하여 국도(國都)를 옮기면 민리(民利)가 무궁하고 병란(兵亂)도 면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9월에 왕이 답사하고 다음 해 10월에 수도를 국내성(國內城; 지금 中國 吉林省 集安市)으로 옮긴다.

몇년전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보니까 처음 수도인 환인성(桓因城)에서 집안시까지의 자동차로 약 2시간이 훨씬 넘는 먼 거리였다. 이렇게 먼 거리를 돼지 한 마리를 잡고자 쫓아간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제물(祭物)에 상처를 냈다 하여 두 사람이나 생매장한 것으로 보면 고구려의 제천(祭天; 東盟)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행사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린 것은 제천행사를 미신으로 몰아붙이는 유학자(儒學者)의 아집이 빚어낸 곡필(曲筆)이 분명하다.

백제에서도 건국 첫해(溫祚王元年)에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적으로 생겨난 민간신앙은 아무리 박멸하려 해도 없앨 수 없는 것이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 고사(告祠)가 그것이고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고수레」는 누구도 그 연원을 정확히 밝혀 내지 못하는 민족 신앙의 일부이다.

장사를 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고사에는 꼭 술이 있는데 마지막에 상점이나 공장 주변 여기저기에 조금씩 뿌린다.

천지신명에게 바치는 고수레와 같다. 고사를 자주 지내는 몇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비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대상 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상이 없어도 좋다. 그저 자신의 염원을 담아 누구에게인가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지신명(天地神明), 즉 우주의 모든 신에게 기원하면서도 요란스럽지 않은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이다. 민족 고유의 신앙은 언제나 술과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정작 명주(名酒)는 없다.

8. 중국의 술은 아직 유입되지 않았다?

선사시대(先史時代)에도 그랬을 터이지만 고조선(古朝鮮) 이래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의 주축은 중국과 왜(倭; 일본)였는데 중국에서는 일방적인 유입이었고 왜에게는 일방적인 유출이었던 것이 다를 뿐이다.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한(前漢)을 멸망시킨 왕망(王莽)의 신(新), 후한(後漢), 조조(曹操)의 위(魏), 사마(司馬)씨의 진(晉),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해 준 부견(符堅)의 전진(前秦)과 동진(東晉),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시대와 뒤를 이은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구법승(求法僧)들의 중국 방문도 많았고 조공(朝貢)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관영무역(官營貿易)을 통해 문물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는데 농업이나 식품에서 중국과 교류한 자취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돌이켜 보아 벌꿀 酒를 빚었던 흔적을 찾아 본다

면 「나」는 일연선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연선사(1206~1289)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때는 대략 만년(晩年)으로 보아 1200년대 후반기이다. 문무왕 원년(661)과 600년이 넘는 세월이 가리고 있다. 결국 아(我)는 「우리」이고 「김해김씨」이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과 나손(羅孫) 김동욱(金東旭)이 각각 쓴 「삼국유사해제(三國遺事解題)」에서 일연이 누구인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존(國尊) 조계종(曹溪宗) 가지산하(迦智山下) 인각사(麟覺寺) 주지(住持) 원경총조(園

積 가락국기에서만 특별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세를 떠나 불문(佛門)에 귀의했어도 사바(娑婆)세계,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혈연에 대한 미련은 떨쳐버리기 어렵지 않으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 사서(史書)는 제천(祭天)행사를 흘려 보내버렸다.

제2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대로 고구려에는 동맹(東盟)이란 제천행사가 있었고, 마한(馬韓; 뒤에 백제)에는 과종이 끝난 5월과 가을경이 끝난 후 등 1년에 두차례 하늘에 제사지내고

을 수 있을까?

고구려와 백제의 제례(祭禮)가 분명치 않다고 하면서도 『교시(郊豕)가 (농여) 달아나자 왕이 탁리(託利)와 사비(斯卑)란 자로 하여금 쫓아가게 했더니 장옥택(長屋澤) 가운데에 이르러 붙잡아서(달아나지 못하도록) 칼로 각근(脚筋)을 끊었다. 왕이 듣고 노하여 가로되 하늘에 제사지낼 때에 바칠 산 짐승인데 어찌 감히 상처를 냈단 말이나며 두 사람을 구덩이에 넣어 죽였다』라고 썼다.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琉璃明王) 19년에 있었던 사실이

건립했고, 17년 4월에는 국모묘(國母廟)를 세우고 제사지낸 기록이 있다. 38년 10월에는 큰 제단(大壇)을 쌓고 천지에(天地) 제사지낸 기록이 있으며 그 밖에도 제사에 관한 기록이 드문 드문 나오는데 결론과 같은 지(志) 제사(祭祠)편에서는 별 일이 없었는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

이렇게 제천(祭天)행사를 무시하는 바람에 삼국시대의 제사에서 쓰였던 술에 관련된 기사는 자동적으로 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 자생

첨단 기술의 밀양 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봉저소초,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 봉산물
- 봉기구
- 종봉

밀양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

양봉농가의 희소식

1. 현대는 상품·상표시대입니다
 2. 자연이준 최고의 선물, 벌꿀을 아직도 대충대충 포장하여 판매하고 계십니까? **이젠 나 자신만의 칼라포장지에 담을 수 있습니다.**
 3. 벌꿀의 병포장 운송시 파손위험을 최소한 줄였습니다.
 4. 벌꿀은 선물용으로 다수구입되므로 **포장의 고급화를 이룩하였습니다.**
 5. 박스를 0.5초만에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6. **상호와 주소는 개별 인쇄할 수 있습니다.**(상표와 생산자 표기는 고무인으로 직접 표기)
 7. 제품의 양쪽면에는 벌꿀 취급시 주의사항 및 벌꿀에 대한 설명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박스규격 2.4kg용 가격 470원 ■ 각 양봉원에서 주문시 즉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판매처 : 전국양봉원

청량농산

우체국: 701136-0009733-12
농협(중): 793-02-158924
농협: 753050-52-015964(이정호)

☎ 0573-72-1470, 72-1480, FAX: 0573-72-1470